

불교문화 건인... 신행의 꽃 피웠네

연중 캠페인 · 기획

1994년 10월 15일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불교언론 발전을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기획과 연중 캠페인을 이어왔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현대불교가 펼쳐온 불법홍포의 길을 정리했다.

정리=박재완 기자

1994년 각계 관심 속에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현대불교신문사 창립. 10월 15일 창간호 발행(본지16면 특집 8면)

1995년 연중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우리는 불자 가정 스티커를 붙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차문화 대전지 개최.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회 가입.

1996년 대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라는 연중캠페인과 함께, 전국의 중등학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을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부다피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997년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

연중 캠페인 '참회의 삶을 살자'를 전개했다. 지상 캠페인과 함께 도선사에서 참회의 삼천배기도 진행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테마여행을 기획. 불자들과 함께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을 탐방했다.

1998년 '작은 실천 큰 기쁨' 캠페인

깨달음보다는 '실천'을 강조한 '작은 실천 큰 기쁨'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캠페인 '디지털 대장경을 만듭시다'를 후원했으며,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를 진행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를 신설했다.

1999년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연중 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와 '살

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공동(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을 전개했다. 근세 100년 고승기법 메달을 제작 보급했다.

2000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 캠페인 전개

자아성찰을 통한 이웃 사랑과 바른 삶의 서원을 촉구하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캠페인 전개했다. 인터넷 실시간 뉴스 '부다뉴스'를 개통했고, 제1회 불교서적 독서 감상문 공모를 진행했다.

2001년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2001년 | 동국대경원이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을 완역한 해였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캠페인 전개와 함께 도난문화재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2002년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전개. 신행수기 당선작들을 모은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출간했다. 16면+12면, 28면 투색선으로 지면을 개편했다.

2003년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

대불련 총동문회와 함께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16면+16면, 32면으로 증면했다. 스타리랑가 수재인 돕기 공동 주최했다. 한-인 수교 30주년, 인도에서 부처님 모시기 법회도 진행했다.

2004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전개

나눔의 ARS 전화를 개설하고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불교 이것부터 달라져야 한다' 캠페인,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를 진행했으며, '2004 사회복자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2005년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주제 국구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주제로 국구법회(안성 도괴안사 공동)를 진행했으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진행했다.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 전개

미래불자 양성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교를 위해 조계종 군종교구와 공동으로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월정사와 '한안 대종사 수행학림' 공동 주최했으며,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10

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등을 개최했다.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운동과 함께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백암록,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석지현 스님 초청 강연, 원순 스님 <원각경> 특강 동영상 제작 보급했다.

2008년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니다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종교편향과 훼손 행위 감시를 위해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니다' 호법캠페인을 전개했다.

2009년 '당신을 공경합니다' 캠페인

연중 캠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지상 캠페인과 라오스 공생 청소년 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백양사 아난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개최했다.

2010년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최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조선불교유신론 100년(전보삼, 김광석 외) 한국불교 승려열전,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등 다양한 기획을 선보였다.

2011년 연중 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연중 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와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부다뉴스'를 '현 불뉴스'로 개편 오픈했다.

2012년 '나의 서원 나의 신행' 연중기획

사찰조경연구소와 공동으로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 '나의 서원 나의 신행'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을 진행했다.

2013년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을 전개, 어린이불서 1,932권 일선 사찰 및 불자에게 보급양했다. '팔리핀 태풍피해 주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캠페인, <나의 서원 나의 삶>(연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단행본 발간.

2014년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

불자답게 살기 연중기획으로, '탐진치 줄이기'를 들 어보는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를 진행했다.

현대불교가 만든 책들

창간 이후 20년 간 쉬지 않고 이어져 온 연재물은 각각의 의미와 재미를 가지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여 개의 인기 연재물은 연재 후 단행본으로 탄생했다. 대표적 단행본들을 소개한다.

정리=박재완 기자

2011년 연재했던 내용 중에서 가려 뽑아 엮은 것으로, 현각 스님의 불교 철학을 담았다. 호젓한 산길에서의 산책 한편으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발견해 내는 저자의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

▲소설 수미산(전 2권-고은/대원정사)

현대불교신문 제 2호부터 연재된 고은 선생의 대하소설이다. 한국문학의 큰 산맥인 고은 선생이 매우 심혈을 기울여 쓴 이 소설은 작은 섬에 모인 수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우주의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중생의 윤회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술관에 간 붓다(명법/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3년에 연재한 '불교와 미학'을 묶은 것으로,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 '반가사유상'이나 '서산마애삼존불'처럼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을 통해 미학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김홍근/여시아문)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대표작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작품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다. 이러한 그의 의문점들을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다. 1998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생태사회와 녹색불교(유정길/아름다운 인연)

2012년 연재 '생태사회와 불교'를 엮은 것이다. 저자의 생태적 세계관과 녹색적 세계관으로 과연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생명평화, 생태의 관점에서 이 때까지의 사회적 의제를 날 낚이 새롭게 해석한다.

▲법수로 배우는 불교(이제 열/여시아문)

1999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숫자-법수를 통하여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의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 일념, 일단일체단, 이장 등 44개 법수를 불교일화와 함께 해설했다.

▲붓다의 물리학(위오기/공주대학교 출판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것으로, 위오기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정을 체험하고 물질과 마음의 궁극적 실재에 대해 깨달고 난 후 '물질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니나 판 고르프의 저서 <물질현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번역한 것이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스님 이야기(지묵-여시아문)

'현대불교' 2001년 1월 1일자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 연재했던 것으로,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모두 140명 스님들의 수행일화를 소개했는데, 그 중 85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나의 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 편집부/우리출판사)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 나의 신행'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25명의 인터뷰를 묶은 것이다. 이 기획은 제 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을 받았다.

▲잊혀진 가람 탐험(장지현 / 여시아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됐던 내용을 묶은 이 책에는 양양 진전사지, 여주 고달사지 등 저자 장지현 시인이 4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35곳의 폐사지를 찾아다니 기록이다.

▲흔적 없이 나는 새(수불/김영사)

2013년 연재한 것으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전신법요>를 수불 스님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 풀어 쓴 것이다.

▲법정 나를 물들이다 ·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불광출판사)

책 <법정 나를...>과 <가슴이...>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재되었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을 2회에 걸쳐 출판 한 것으로, 장의주, 윤택 스님, 이해인 수녀 등 법정 스님과 만난 37명이 말하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담이다.

▲활발한 금강경(고준환/본각선교)

책의 3부에 해당하는 '금강경과 생활철학' 부분을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연재했으며, 본각선교원의 '생활속의 금강경' 강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선심으로 보는 세상(현각/한길출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출간 예정)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연재로, 추사가 초의 선사와 주고 받은 편지글을 소개했다. 인간의 아름다운 우정, 사람냄새가 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1996년에 인기리에 펼쳐진 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캠페인



2004년에 개최된 '나눔의 손잡기' 장학금 전달식



2005년 하위에서 개최한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금강산 화암사 미륵 대불 봉안 및 금강산 풍악제 (산사음악회)

금강산 최남단,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암사에서 야외 미륵대불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풍악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함께 나누는 넉넉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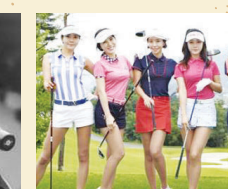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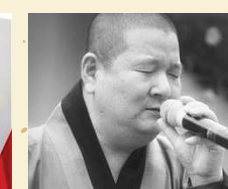
■ 일 시 :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 식 순 : (1) 아산범패 점안식 (10시 ~ 11시) (2) 미륵 대불 봉안법회 (11시 ~ 12시)
(3) 화합한마당 (12시 ~ 13시 30분) (4) 산사음악회 (13시 30분 부터)

■ 주최 : 금강산 화암사 ■ 주관 : 춘천불교방송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 고성군청

■ 풍악제 (산사음악회) : 사회 김종석

· 출연진 : 니나노난다, 김진묵과 트로트밴드, 레이디티(5인조 그룹), 도신스님, 허윤아, 조기량, 한설민, 김태곤



금강산 화암사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 / 전화 : 033)633-0090